

이달의 농단

계란의 계획생산을 추구한다



李 在 根
(고려대학교 농과대학교수)

양계업 불황의 사이클은 2~3년 만큼 거듭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이제는 그러한 경향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채란양계에서 그러하다. 그 원인은 명백하다. 영세농민의 부업형태로부터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전업 내지 기업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1,000수 이상 사육농가 8,000호가 70%의 닭을 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에 처했던 1978년 경까지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에 따라 영세한 농촌양계의 희생을 딛고 기업양계가 발전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현존 양계업자들은 그런대로 호황을 누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패턴이 붕괴되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사료 가격의 30% 인상, 전기료, 약가 기타 모든 자료대 및 노임의 양등등은 채란양계업자들을 빈사의 함정에 몰아 넣고 있다. '비령이 제자루 찢기'의 아주 처참한 시련에 부딪히고 있다. 1,000수 규모의 채란양계에서 1년간 사료비증가 부담이 120만원이나 된다. 이러한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계란 생산비 증가 요인 만 커버하려 해도 계란 1개당 9~10원이 올라야 된다. 1978년 가을에 특란이 43원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난가에 대한 기대는 절대로 무리한 것이 아니련만 계란 중간 상인들의 엄청난 인상선심(?)에도 불구하고 난가의 상승 경향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유류가와 환율 인상으로 경직된 서민생활은 계란소비를 위축하고 있으니 난가의 자연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채란양계가들이 얼마동안이나 버티어 갈 것인가. 많은 희생이 강요되면서 무자비한 도태가 강요될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업은 아주 짧은 근세 발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속한 기업화로 말미암

아 영세양계농가의 많고 큰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슴아픈 전철을 또다시 되풀이 하길 강요당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시책 당국이나 학계, 업계 모두는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다.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다. 근대양계는 다산성, 강건성이 부여되고 또 케이지의 발달로 대량 기업화가 손쉽게 때문에 도시 중산층들의 기업투자의 좋은 대상으로 되어 다투어 계란의 과잉생산을 부채질해왔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전대미문의 양계 불황은 오히려 이러한 투기성 양계업에 대한 제도장치를 할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양계업은 이렇게 생산과잉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적인 면에서는 양계 증산이나 진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달에 관하여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선진국들의 양계산업에 관한 제도나 시책면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의 두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번의 양계불황을 오히려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양계산업안정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본지 1월호에 오봉국·박영인 두분의 아주 세밀하고 적절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우리 양계인들의 뜨거운 공명을 받고 있거니와 본인도 수년전부터 기회 있는 대로 채란양계의 계획 생산 방안을 제시 역설한 바 있다.

저간 우리들은 양계생산을 억제하기위해서 부화량의 조절등 여러므로 힘을 써 보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았다. 본인은 본란에서 상기 오·박 두분의 안정화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계란을 계획생산하여 알맞은 생산으로 소비에 대처하면서 양계농가도 안정된 경영기조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몇가지 지견(智見)을 제시한다.

첫째 농수산부 축정국내에 양계담당 부서를 설치 강화할 것: 양계산물은 축산물 생산액 중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계업자들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식품자원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당국인 축정국내에 양계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양계정책 부채속에서 불나방 모양으로 뛰어들었다가 멸망해 가는 농민들을 천허 의식조차 하지 않는 당국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다. 학계에서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 이미 오래되었건만 시책당국에선 전혀 메아리조차 없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양계 전담부서를 설치 강화하여 국내의 양계의 안정화 방안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또 중지를 모아 조속히 양계 안정에 관한 정부 당국의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

둘째, 양계산업 안정 긴급대책 위원회의 설치: 농수산부내에 양계 각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양계산업안정 긴급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책 또는 제도의 마련에 필요한 자문기관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계란의 계획생산: 전술한 바와 같이 닭은 생산성이 과다하며 또 양계업은 대량기업화가 아주 쉽기 때문에 항시 생산과잉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계농가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닭의 사육수수를 제한하여 수급에 알맞은 수량을 생산하도록 조절하는 수 밖에 없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생산조절을 법률로서 또는 행정지도 방법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이미 독자들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중 일본에 있어서의 생산조절 방법은 우리나라에

서 채택 운영하기에 매우 손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계획생산 방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1974년 부터 실시하는 일본의 채란계에 대한 생산조절은 농림성 축산국장, 농업경제국장, 농업구조개선국장의 연명통첩으로 3,000수 이상 사육자에 대한 사육수수의 동결로 시작되었다. 3,000수 이하의 소위 농민의 양계로 규정하여 경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는 시읍면 단위로 조직운영되는 계란생산조절 위원회의 감시에 사육수수의 증가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육수수의 증가는 정부의 수급계획에 의한 증가수수의 몫 밖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사육수수 동결시책에 대한 실시상황을 보면 비밀히 증수를 하는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아주 잘 협조하고 있다.

다만 계약생산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를 무시하여 임의로 수수로 증가시키거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3,000수 이하의 농가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약생산 기업체들의 비협조에 대하여는 일본의 국회에 까지 비화하여 큰 논란 껴리가 되고 있다.

이 시책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는 각종 용자금, 저난가 보상금, 농지의 전용(轉用)허가 등 가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에 양계생산의 통제를 법제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주무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 비슷하게 계란의 계획생산을 실시하여 그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실시해 가면서 결함을 보완해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화에도 힘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양계인들은 너무나 지쳐 있다. 아주 빈사상태에 놓여 있어 짚오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형편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희

생이 강요되고 있으며, 또 많은 농가가 도산되어 갈 것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요 귀중한 우리들의 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국민을 이렇게 정책부재의 늪속에서 헤매는 상태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가. 시급한 구제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란의 생산조절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계 안정기금의 설치: 계란 과잉생산시의 비축, 고란가시의 방출, 저란가시의 가격보상, 유통개선, 소비대책 등에 필요한 기금은 우선적으로 우리 양계업자 자신들이 조합비등의 형식으로 부담할 각오가 서야 된다. 우리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크다. 양계 배합사료에 대한 가산금, 축산진흥기금의 지원 등은 절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을 하여 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다.

둘째. 시군 양계조합의 설치: 계란의 계획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업무가 뒤따르게 된다. 사육수수 동결에 대한 감시, 기금의 할당, 징수, 계란의 수매, 판매, 수송, 보관, 방출, 보상금의 지불, 상품개선 기타 조합원을 위한 봉사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계인들이 운영하는 우리들의 양계조합이 적어도 시군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므로써 마야진을 극소화 하여 소비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양계조합 전국 연합기구를 들어 지역별 계란의 수급조절과 난가의 조정결정업무를 담당케 한다.

셋째. 시읍면 계란생산조절 위원회의 설치: 농수산부의 당해년도 계란 수급계획에 따른 채란계 사육수수 증감에 따라 시읍면 조절위는 3,000수 이상 등록 농가에 대한 사육수

계란의 계획생산을 촉구한다

증가수수를 협의 할당하며, 또 이에 수반되어 야기되는 많은 민원업무 및 위반자들에 대한처리 등을 권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규 대규모양계의 억제 를 골자로 하는 계획생산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거니와 끝으로 양계업자들의 위기를 구제하기위한 긴급처방 한두가지를 피력한다.

양계업에 대한 소득세를 당분간 전면 적으로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료비등 계란 생산제비는 엄청나게 뛰어들라 개당 생산원가는 42원인데 계란값은 오르지 않아 겨우 31원에 머물고 있다. 타에 유

래가 없는 이러한 극심한 경영난을 구제하고 양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상의 긴급 보호책이 요청된다.

다음에 소비의 신장을 위하여 액란(液卵), 분란(粉卵)등 가공처리가 시급히 요청된다. 전번과 같은 계란의 수입은 양계업의 불황을 부채질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이러한 시책의 잘못은 곧 시정 되었기에 다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액란, 분란 등 용도계 적합한 가공처리는 이러한 것들의 도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를 신장하며 또 비축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수단이기도 하기에 축산진흥회 등에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시책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수익성이 높은

렉스 (REX) 토끼분양!

렉스란? : 세계적으로 밍크의 인기를 압도하는 새로운 고급 모피용토끼로서 색깔이 매우 다양하며 아름답습니다. (특히 日本 여성들의 모피 선호도 랭킹 1위)

- * 사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야생풀을 주사료로 하므로 배합사료 섭취는 약 5% 정도로서 사료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 * 모피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농장에서 모피를 수매하므로 판매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번식력이 강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
번식력이 강해 1쌍이 1년에 30~40마리의 새끼를 낳아 수익성 높습니다.
- * 철저한 사육지도를 실시합니다!
책자 및 수시상담으로 철저한 사육지도를 실시합니다.

(분양가격)

성토(1쌍) : 140,000원, 육성토(1쌍) : 80,000원
자토(1쌍) : 50,000원

두남렉스농장 (대표: 전남렬)

경기도 수원시 상광교동 76-3

☎ (수원) 5-7339

(수원 남문 영동시장 앞에서 상광교동행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하차)